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기념 참조기 종자 방류

어린 참조기 20만미 방류...20여 명 참석

수산자원 조성·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

영광군은 "5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광법성포단오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2일 지역특산 어종인 참조기 종자 시범방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 행사에는 강종만 군수, 도의일, 군의원, 영광경찰서장,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영광군 수협장, 단오보존회장, 굴비특품사업단장, 어촌계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영광군은 법성포 단오제 시기에 맞춰 지난 6월 13일 칠산 해역에 참조기 종자 20만미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방류한 참조기는 전라남도 해양수산

과학원 서해특산시험장에서 선발 육성해 관리해온 어미 참조기에서 생산된 어린 참조기로 양식 시 생존율이 높고 상품성이 우수하다.

또한, 이번 방류는 굴비 본 고장의 상징성을 더하고, 굴비 원료인 참조기의 어획량을 늘려 영광 굴비 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해양환경 변화 및 남획 등으로 인해 참조기를 비롯한 수산자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참조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자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영광굴비 산업의 명성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속가능한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여름 세균성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당부

목포시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무더위에 따른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시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습한 날씨로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장염, 살모넬라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염, 살모넬라균은 세균성 식중독 중 가장 발생 건수가 높으며, 세균 증식에 알맞은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장염은 어패류나 날음식 등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감염되며, 살모넬라는 주로 익히지 않은 육류와 달걀,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 등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더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내려 습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및 식사 전 30초 이상 손씻기 ▲육류 등 충분히 익혀먹기 ▲과일·채소류는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그고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기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지키기 ▲칼·도마는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도구 사용 후 세척·열탕처리 등을 실천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 감염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진행해 식중독 예방요령 등 현장 교육과 위생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경각심을 재고했다.

오는 7월에는 바닷가 주변 횡집 수족관물 및 생식용 어패류 감사를 통해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음식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맞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름철 음식주의와 올해 가을 개최되는 전국제천·장애인체전의 성공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털어먹기 및 위생적 수저 관리 등 식문화 정착 ▲위생·청결·진절에 초점을 맞춘 언론매체 홍보와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모범음식점 104개소, 으뜸맛집 138개소, 위생등급제 123개소, 안심식당 38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홍보하고 청결운동과 위생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시를 대표하는 우수 음식점인 모범음식점 및 으뜸맛집 등을 대상으로 주방 환경, 복장, 청결 유지를 위해 앞치마 등 위생물품을 배부하고 영업주의 위생 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음식물 재사용 금지 ▲위생적 식재료 취급 ▲조리 종사자 개인의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강화 등 식문화 안전·예방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목포=기동채본부

무안군, 2023 하반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공근로사업 56개 분야 89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개 분야 17명

무안군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2일간 모집한다.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11명을 증원해 공공

근로사업 89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명으로 총 106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등 56개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향토전통기술 전수사

업, 여성원어민강사 아동학습지원 등 8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무안군민을 대상으

로 한다. 단,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하반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런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민간 일자리 진입의 디딤돌로 민생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보건소, 소방 훈련 및 안전 교육 실시

함평군 보건소가 지난 22일 자체 소방 훈련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소 주차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보건소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공용재산을 보호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 소방 대원

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중점 훈련 내용은 ▲화재 상황 전파 ▲직원 대피 유도 요령 ▲소방·방화시설 사용법 ▲초기 화재 진압 방법 등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바다폐기물 어장청소 실시

신안군, 바다폐기물 어장청소 실시

신안군은 블루이코노미 중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페어구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어장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신안군 해역에 2030년까지 고정식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해역에 부설된 어구(밭줄, 어망, 부이 등)에 의해 공사 및 사전 조사를 위한 선박 운행 중 걸림, 감김 등 예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에서는 해상풍력 TF팀을 구성하여 발전단지 사업지구 내 부설된 어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유자가 확인된 어구에 대해서는 어구의 이설 및 원상회복 조치하고, 소유자가 없는 페어구는 공고를 통해 해양폐기물로 간주하여 수거·처리 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완료되면 연간 3천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하여 평생 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해상풍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